‘민관 협치’ 결과물…코로나 위기 딛고 공정률 32% ‘순항’

광주, 민주화 도시 넘어
경제·문화 중심도시로

〈4〉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착공

1단계 2023년, 2단계 2024년 개통
정거장 44곳…5개 자치구 경유
30분이면 광주 어디든 갈 수 있어
지역업체 참여 확대 경제 활성화 단비

광주시는 민선 7기 들어 지역 내 해묵은 갈등 현안을 시민과 함께하는 ‘민관 협치’ 행정으로 해결하고 있다.

국내 최초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부터 장록습지 보존, 무등산 난개발 저지 등도 ‘민관 논의형’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특히 20년 가까이 지역사회를 찬반 대립으로 갈라 놓았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민관 협치’ 행정의 대표 결과물로 꼽힌다.

광주시는 2018년 “2호선 건설 여부는 시민 뜻에 맡기겠다”며 시민 공론화 모델인 ‘숙의 기반 주민참여’ 방식을 도입했고, 시민들은 논의를 거듭한 끝에 공사 착공을 결정했다. 시민연대를 기반으로 한 이 사례는 이듬해인 2019년 정부의 갈등관리 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함께 시내버스 등을 전면 개편하고, 광주의 미래 대중교통 복지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딛고 30% 넘은 공정률=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32%의 공정률을 보이는 등 순항하고 있다.

순환선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길이는 마라톤 풀코스(42.195㎞)에 조금 못 미치는 41.843㎞에 이른다. 2호선 공사는 전체 구간을 1~3단계로 나눠 진행되는데, 단계별 공사가 끝나면 그때그때 부분 개통한다. 1단계 구간은 시청~상무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남광주역~조선대~광주역 등을 거치며 노선 길이는 17.003㎞다. 2023년 개통이 목표다.

2단계 구간은 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첨단지구~수완지구~운남지구~시청 등을 거치며, 노선 길이는 20㎞로, 2024년 개통된다. 지선 개념의 3단계는 백운광장~진월동~효천역 4.8㎞이며 2025년 말 개통 예정이다.

2호선 정거장은 모두 44곳이며, 차량 한 대(2량) 정원은 153명으로 36대가 순환하는 구조다. 정거장에서 2분 정도만 기다리면 곧바로 탈 수 있다. 타원형 노선을 순환하는 2호선과 연결되는 기존 1호선에 더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광주 웬만한 곳은 30분이면 갈 수 있게 된다.

◇도심 주요 지점 모두 관통=2호선은 광주 5개 자치구 주요 지점에 정거장을 두게 된다. 구 도심과 신도심, 전남대와 조선대 등 대학가, 광주시청 등 관공서, 월드컵경기장 등 편의시설을 두루 거친다. 또 1호선 남광주역과 상무역에서 교차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이 5개 자치구를 경유하면서, 역세권 개발은 물론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견인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1호선과 연계해 주요대학 4곳, 고등학교 16곳, 택지지구 18곳, 주요관공서(시청, 5개구청, 법원·검찰청 등)를 대부분 통과한다. 수혜인구(영향권 인구)만 전체 시민의 71%인 최대 103만명에 이른다.

◇시민 안전·편의성 확보 최우선=고무바퀴 방식으로 운행되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시민 안전과 편의성 확보를 위해 ‘완전 밀폐형 스크린 도어’와 타이어 펑크 감지 장치 등을 포함한 고기능 ‘차량 시스템 안전 관리 장치’를 도입한다.

화재 대응 시스템도 최신 방식으로 설계됐다. 차량 내·외장재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불연·난연 재료를 사용하며 화재감지기, 비상통신설비, 비상조명장치 등을 설치한다.

또 사회적 재난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대비를 위해 차량 내부는 물론 모든 정거장에 미세먼지 저감장치(공기정화장치)를 구축한다. 완전 밀폐형 스크린도어는 선로에서 유입되는 분진과 오염물질을 사전 차단하고, 승객 추락 사고를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단비=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공사 본사 방문, 공정 회의 시 지역업체 참여 협조 요청 등을 통해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지역민 고용, 지역에서 생산하는 건설자재 및 장비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착공 후 현재까지 하도급, 용역, 폐기물 처리 등 지역업체 계약액만 3173억원으로 참여비율 78%를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철도 공사에 고용된 지역 인력만 14만4426명에 이른다.

시는 잔여구간에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건설협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시공사측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대경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광주 도심 전역 공사구간 확대에 따른 교통정체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등과 대책마련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부 불편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죄송한 마음”이라며 “공사 완공시까지만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양해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투자협약 체결 전남도는 18일 도청 접견실에서 포스코(POSCO) 계열사인 ㈜에스엔엔씨 및 호텔 ㈜도리포카이파 등 2개 기업과 2205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무안에 400실 호텔·풀빌라 숙박시설 들어선다

전남도, 도리포카이파 등과 협약

무안에 400실 규모의 호텔과 풀빌라 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전남도는 18일 도청에서 호텔 관광사업 분야 ㈜도리포카이파 등과 투자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정미란 도리포카이파 대표, 전남도·무안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관광전문기업 도리포카이파는 무안군 도리포 일원 4만7000㎡ 부지에 1620억원을 들여 2024년까지 호텔(308실) 풀빌라(100실) 등 휴양숙박시설을 건립한다. 이렇게되면 지역 청년을 위한 23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게된다.

도리포 관광 휴양시설은 무안공항·고속철도와 서남권 비교우위 해양 관광자원이 서로 어우러져 지속 가능한 전남 체류 관광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리포카이파의 투자는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의 좋은 본보기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무안군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도리포 관광휴양단지(11만 4000㎡)조성사업’의 사업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호텔 등 시설물 건립을 민간자금으로 해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관광 분야 투자협약을 계기로 전남이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정부합동 정량평가 특·광역시 1위

정성·국민평가서 우수사례 6건

광주시가 행정안전부에서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2021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정량평가 부문 특·광역시 1위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합동평가는 매년 행안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수행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정부의 유일한 자치단체 종합평가제도다.

정량평가, 정성평가, 국민평가 등 3개 분야에 대해 평가가 이뤄지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는 시부(특·광역시)와 도부로 나눠 상위 지자체 각 3개를 선정한다. 국민평가는 일반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분야 우수사례를 시·도부 각 5건 선정한다.

광주시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정량평가에서 5대 국정목표 관련 총 84개 지표 중 78개 지표의 목표치를 올려 달성률 92.9%로, 전년대비 10.2%p 상승하는 성과를 냈다. 정성·국민평가에서도 6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정성·국민평가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는 ▲보조금 운용체계·인식 강화를 통한 보조금 분야 청렴도 제고 ▲아이낳아 키우기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 ▲청소년이 직접 사전조사·계획·구상하여 실행한 깨끗한 거리만들기 ▲지자체-교육청-지역대학 간 상호협력 인프라 구축(대학발전협력단 구성)을 통한 지역대학위기 공동대응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생태특화도서관 육성 등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분야 장관상

8.2GW 해상풍력단지 등 공로

전남도가 기획재정부의 ‘한국판 뉴딜 추진 유공 포상’ 지역균형뉴딜 분야에서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전남도는 그동안 도 대표 브랜드 시책인 ‘청정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바탕으로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전남형 뉴딜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실현·확산하고, 성과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남도는 해양, 섬, 숲, 갯벌 등 청정자원과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드론·스마트 항만 등 미래신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남형 뉴딜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설계인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자리잡도록 힘쓰고 있다.

특히 8.2GW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 NHN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 한국에너지공과대 개교 등 한국판 뉴딜의 중심축인 디지털·그린·휴먼 뉴딜을 선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지역균형뉴딜 투어 행사’ 1호로 전남을 방문해 그린뉴딜을 선도할 해상풍력발전단지에 기대감을 표명하며, 전남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을 선도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조선이공대학교 제12대 총장임용후보자 초빙 공고

학교법인조선이공대학교는 1946년 7만 2천여 설립동지회원들이 뜻을 모아 부강한 국가건설과 세계인류 공영을 위해 봉사하는 영재를 양성하고자 개성교육 · 생산교육 · 영재교육이라는 건학이념을 목표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민립대학입니다. 민립대학의 설립정신과 건학이념을 수호하고 본 대학교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덕망과 리더십을 갖춘 조선이공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를 모시고자 합니다.

초빙 대상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설립정신과 건학이념을 존중하고,
-학문적 소양과 덕망을 갖추고 학교 발전에 기여할 분으로서
-‘조선이공대학교 총장 선출 규정’ 제4조의 자격을 갖춘 분

초빙 방법
-초빙 공고에 응모한 분을 대상으로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가 자격심사를 실시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평가단의 평가를 통해서 3인을 선정한 후 구성원 선거인단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2인을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

제출 서류
가. 총장공모지원서 나. 대학경영계획서
다. 발전기금 납입 영수증 라. 범죄경력조회서(경찰포털사이트에서 발급)
마. 자기 소개서 등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조선이공대학교 홈페이지 참조)

기 타
가. 소정 서식은 조선이공대학교 홈페이지(https://www.cst.ac.kr/)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문의처 (☎ 062-230-8040, 010-3038-5015)

등 록
가. 등록 방법 : 방문 등록
나. 공고기간 : 2022. 4. 19.(화) ~ 4. 26.(화)
다. 등록기간 : 2022. 4. 26.(화) 9:00 ~ 17:00까지
라. 등록처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1
조선이공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본부동 5층 자체평가위원회 사무실)

2022년 4월 19일

조선이공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